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도산서원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목차

##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 안동 도산서원

01. 안동 도산서원 개요	23
02. 강학	29
03. 제향	40
04. 교류와 유식	45

안동 도산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7
-------------------	----



## 01. 유네스코와 유산

###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 02.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업무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講會	향사享祀를 지낸 후, 「백록동규白鹿洞規」나 「여씨향약呂氏鄉約」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講生이 강장講長 앞에서 진강進講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읍례揖禮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읍揖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陳設: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瞻拜: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相揖:서로간 읍례를 거행함-승당升堂:당에 오름-독규讀規:규약을 읽음-배독拜讀: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進講-예필禮畢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白鹿洞規, 사물잡四勿箴, 심잠心箴,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제



성생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크게 중시하지 않음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 안동 도산서원

### 01. 안동 도산서원 개요

#### 1) 도산서원의 역사

##### (1) 건립

##### 건립 배경

- 1551년 이황李滉, 1501~1570이 도산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상서당溪上書堂 건립
- 이황 사후 추송 사업 진행
  - \* 묘도문자墓道文字: 묘비, 묘지에 고인의 행적을 새김
  - \* 문집文集: 학문과 사상을 드러내어 학풍을 계승하기 위해 편간
  - \* 문묘文廟 종사: 공자의 도통을 계승하는 제자 반열에 오르는 것, 공론 수립의 과정을 거쳐 동방5현(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으로 1610년 실현
  - \* 종묘宗廟 배향: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의 치세를 보필한 대표적인 신하로 인정받아 1610년 선조 묘정에 배향
- 이황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추송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산서원 건립

##### 건립 과정

- 1557년 금응훈琴應勳, 1540~1616 등 문인들이 간청하여 도산陶山 남쪽에 서당 지을 땅 마련



## (2) 사액

### 도산서원 사액

- 1575년 이황의 위패 봉안 전 조정으로부터 도산서원 편액 하사
-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로 편액 제작

### 도산의 의미

-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있는 산
- 옛날 산 중에 질그릇을 굽던 곳이 있다는 설이 있음
- 이황은 도산서당이 완성된 이후 호를 도옹陶翁이라 함

## (3) 운영

### 도산서원 원규

\* 도산서원은 1559년 이황이 제정한 이산서원伊山書院 원규를 적용

- 제생들은 독서할 때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로 삼아 국가가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따르라
- 제생들은 견고하게 뜻을 세우고 따르고 향하는 바를 바르고 곧게 하여, 학업을 원대하게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道義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 제생들은 항상 마땅히 각자 서재에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라
-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안 된다

- 1558년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옥사도자屋舍圖子를 보내어 승려 법련法蓮과 논의하도록 하여 착공
- 1561년 승려 정일淨一 완공,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 건립
- 1572년부터 고을 선비들이 이황이 도를 강론하던 곳에 서원이 있어야 한다며 서당 뒤의 땅에 사묘 건립 논의
- 1574년 상덕사尙德祠, 전교당典教堂, 동재, 서재 등 건립 후 1576년 상덕사에 이황의 위패 봉안

### 도산서원 재정 마련

- 이황의 발의로 고려 말의 학자 우탁禹倬, 1262~1342을 제향하는 역동서원易東書院을 세우느라 예안禮安 사람의 물력이 바닥난 상황
- 서당 당시 전답田畓을 서원에 이속
- 경상감사의 협조를 약속받아 건립 논의 재개, 지방관의 지원 지속
- 조목趙穆, 1524~1606, 이덕홍李德弘, 1541~1596, 김부필金富弼, 1516~1577, 금응협琴應夾, 1526~1596 등 문인 주도
- 건립 초 경상감사 윤두수尹斗壽, 1533~1601는 폐사廢寺인 진흥사眞興寺의 토지를 도산서원에 분속
- 이황을 제향하는 안동 여강서원廬江書院, 봉화 창해서원滄海書院의 전답 일부 이속

- 성균관 명륜당에는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잡四勿箴과 회암晦庵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열 가지 가르침,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의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에 여러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경계하라
  - 책은 밖으로 내지 말고, 여색을 문 안에 들이지 말며, 술을 빚지 말고 형벌을 사용하지 마라
  - 서원의 유사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품관品官 2인에게 일을 맡기고, 또 선비 중에 일의 이치를 알고 옳은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받들고 따르는 자 1인을 상유사上宥司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하라
  - 제생과 유사는 예를 지켜 서로를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도록 힘써라
  - 서원에 속한 사람을 너그럽이 돌보아라
  -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문文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인재를 일으키려는 뜻이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라
  - 동몽童蒙은 수업을 받거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 임시 원생은 관례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은 없고 성재成才라면 곧 서원에 천거하라
- \* 원규의 앞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 도산서원 원임(院任)

- 서원의 재정 및 유생들의 생활 전반 관리
- 원규에 상유사上宥司, 하유사下宥司 체제로 명시된 것을 도산서원에서 그대로 유지
- 입원생 중에서 상유사 선출
- 『전임안前任案』, 『전장책傳掌』을 통해 유사 명단, 재임 기간 등 확인
- 도산서원에서는 일시적이지만 현직관료가 원장을 맡기도 함
- 서원의 중대한 일에 따라 별유사別宥司를 두기도 함

## 원생(院生)

-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
- 일정한 나이 이상,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
- 서원에 들어올 때 공론公論으로 허락받지 못하면 입원할 수 없음
- 천거자는 7~8명을 추천할 수 있음

## 2) 도산서원의 공간 구성

### 도산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
- 전면에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탁 트인 경사지에 입지

## 02. 강학

### 건물

#### 전교당(典敎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 및 주요 의례 집행 공간
- 창건연도: 1574년 / 보수: 1969년
- 전교典敎: 전典은 오전五典, 즉 오륜五倫을 가리키며 전교는 오륜을 가르침으로써 인륜을 밝힌다는 의미
-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원장실인 한존재閑存齋와 강당으로 구성

#### 전교당 관련 유물

- 현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산서원 이야기(이동구, 저)』 참고

#### 도산서원 현판

- 한호의 글씨
- 만력萬曆 3년1575 6월 일 사액 받음
- 이항 생전에 진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의 이름을 이어받음

#### 전교당 현판

- 글씨는 이일삼李日三, 1626~1700 또는 심인조沈仁祚, 1555~1605가 작성했다고 전해지나 미확인

#### 한존재(閑存齋)

- 도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 편액

- 서원 건물은 낙동강과 평야를 바라보도록 구성
- 강학 공간 전면에 도산서당이 자리잡고 있음
-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하여 한국 서원의 전형
- 선현인 이항의 강학처에 입지

### 도산서원 건물배치도

- 경사지의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배치 정형을 최초로 제시
- 강학공간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
- 제향공간인 상덕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입구에서부터 경사지를 활용한 예禮 경관 구축
-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한존閑存: 『주역周易』의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는 것에서 취함, 사악함을 막으면 자연히 성실함이 보존되는 것으로 이황 철학의 핵심 요소

### 원규(院規)

- 이황이 1559년 제정한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원규院規
-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전범으로 도산서원도 적용
- 유생들의 교과과정, 공부 방법, 서적 관리 등을 규정

### 백록동규(白鹿洞規)

- 전교당 동쪽 벽에 걸린 현판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儒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 기재

### 사물잠(四勿箴)

- 전교당 동쪽 벽에 걸린 현판
- 남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지음
- 안회顔回, BC521~BC481가 스승 공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

###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전교당 동쪽 벽에 걸린 현판
- 남송의 유학자 진백陳栢: 진남당陳南塘이 지음
-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경재잠敬齋箴과 표리表裏를 이룸
- 이황은 숙흥야매잠도를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

### 국기(國忌)판

- 전교당 북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두 개로 나뉨(현재는 퇴계 선생 향립 약조로 대체됨)
- 조선 역대 국왕(태조~정조)과 왕비의 기일,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 金氏, 1753~1821부터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까지 기술

### 기일(忌日)판

- 전교당 서쪽에 걸린 현판
- 선현인 이황과 종향위從享位 조목의 기일 기재
- 이황: 12월 초8일
- 조목: 10월 29일

### 도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판

- 전교당 북쪽 벽에 걸린 현판
- 도산서원 춘추향사 때 현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 다른 서원에 비해 간략

전	봉	봉	봉	사	찬	알	찬	축	집	분	중	아	초	현	현	향
작	작	로	향	준	인	자	자	사	사	현	현	현	현	관	관	사
										관	관	관	관		집	시

### 정조(正祖) 전교(傳敎)

- 전교당 중앙 들보 위 동쪽에 걸린 현판
- 1792년 정조가 이만수李晩秀, 1752~1820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전교한 내용
- \* 치제: 국가에서 왕족이나 대신,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 제문과 제물을 갖추어 지내주는 제사



## 박약재·홍의재 관련 유물

### 박약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나 미확인

### 홍의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나 미확인

## 동광명실(東光明室)·서광명실(西光明室)

- 목적: 서책을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
- 진도문을 가운데 두고 동·서 두 곳으로 나뉘
- 습해(濕害) 방지를 위해 누각식으로 설립
- 역대 왕의 하사한 서적과 이황이 보던 수택본(手澤本), 문집 등을 보관
- 1871년 역동서원(易東書院)이 철폐되며 서적, 현판 등을 도산서원으로 옮김
- 광명(光明): 주희가 '우리에게 광명을 베풀어주네(惠我光明)'라고 한 것에서 취함
- 2003년 전적, 고서류 등 8,156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후 현재는 근세 서책류 보관

## 동광명실·서광명실 관련 유물

### 동광명실 현판

- 1775년에 전교당 동쪽에 서각(書閣)을 지어 역동서원의 광명실 현판을 모각하여 걸었다가, 1819년 동광명실을 신축하며 다시 걸었음

## 도산서원견각신치제문(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 전교당 중앙 들보 위 서쪽에 걸린 현판
- 1792년 정조가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치제한 제문
- 정조의 전교를 받들어 이만수가 작성

### 숙종(肅宗) 전교(傳敎)

- 1676년에 도산서원 노비에 대한 면역 지시를 1690년에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

### 향립약조(鄉立約條)

- 예안의 향촌사회를 계도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
- 예안향약이라고도 함
- 2019년 전교당을 보수하면서 국기판과 대체하여 걸었음

## 박약재(博約齋)·홍의재(弘毅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 전교당의 동서에 위치하여 서로 바라보며 배치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학생 수가 증가하며 점차 확대 건립
- 박약(博約):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는 '군자는 문(文)에 대해 널리 배우고 예(禮)로써 요약하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취함
- 홍의(弘毅): 『논어』에서 증자(曾子)가 '선비는 마음이 넓고 굳세어야 무거운 소임을 다하여 원대한 길에 이른다'고 한 것에서 취함
- 동재인 박약재 기숙 원생이 서재인 홍의재 원생보다 선배로서 홍의재에는 직책이 없는 사람이나 일반 유생이 거거

- 1557년 착공, 1561년 완공
- 목조기와집 맞배지붕의 동서쪽에 눈썹 처마를 단 세 칸 반으로 부엌, 방, 마루로 구성. 동쪽 눈썹 처마 아래에 살평상을 꾸몄고 원래 한 칸으로 지으려 했으나 승려 정일이 마루 한 칸을 더 늘려 지음
- 방: 완락재(玩樂齋)
- 대청마루: 암서헌(巖栖軒)

### 도산서당 관련 유물

#### 도산서당 현판

- 1561년 이황이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 작성

#### 완락재(玩樂齋) 현판

- 도산서원 건물 안에 있는 퇴계가 기거하던 작은 방의 편액
- 완락(玩樂): 주희가 「명당실기(明堂實記)」에서 『중용(中庸)』의 '수도지교(修道之教)', 『대학(大學)』의 '명덕(明德)',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내용을 즐기며 완미(玩味)하겠다고 한 것에서 취함

#### 암서헌(巖栖軒) 현판

- 암서(巖栖): 주희의 「운곡십이영(雲谷十二詠)」의 '스스로 오랫동안 능하지 못하다고 믿어 바위에서 살며 작은 효과를 바란다(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에서 취한 것
  - \* 栖와棲는 통용됨
- 이황의 글씨

### 서광명실 현판

- 1939년 서광명실을 증축하며 역동서원에 걸었던 현판을 걸었음

#### 이주부공사적(李主簿公事蹟)

- 동광명실 건물 북쪽 중앙 벽면에 걸린 현판
- 1678년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닳게 되어 이휘녕(李彙寧, 1788~1861)에게 새로 지어 게판하도록 함
-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 선생의 위패를 보관한 이운(李芸, 1568~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

#### 진성이동준공공적기(眞城李東俊公功績記)

- 서광명실 건물 북쪽 중앙 벽면에 걸린 현판
- 2010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이동준(李東俊, 1915~1988)의 퇴계학의 세계화 공적을 기리기위해 현판을 걸었음

### 장판각(藏板閣)

- 목적: 서원의 출판소, 책판 보관
- 전교당 동쪽에 위치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퇴계의 문집, 유묵, 언행록 등 2,790여 장의 판각 소장,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

### 도산서당(陶山書堂)

- 퇴계 이황이 거처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곳
- 서원 내 가장 오래된 건물, 이황이 직접 설계

## 역락서재(亦樂書齋)

- 목적: 도산서당 제자들의 기숙사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1564년 농운정사 옆에 짓고 1781년 옮겼으나, 1867년에 현재의 자리로 다시 지음

### 역락서재 관련 유물

#### 역락서재 현판

- 이황의 친필
- 역락亦樂: 『논어』에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에서 인용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도산서원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강학 활동 존재
- 소장 자료를 통해 서원의 교육 방식 입증
- 다양한 철학적 논쟁을 통해 학파의 통일된 의견 종합
- 관련 유물: 『강회록講會錄』, 『강회일기講會日記』 등

## 이황의 강학 활동

- 1551년 귀향한 이황은 계상서당을 지어 후학 교육
- 1557년~1561년 다시 낙향한 이황이 문인들의 요구에 따라 도산서당 건립

## 농운정사(隴雲精舍)

- 목적: 이황 문인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곳
- 이황이 직접 설계
- 8칸 규모, 공고자 형태의 건물
- 농운隴雲: 양나라 도홍경陶弘景, 458~536의 시에서 인용

### 농운정사 관련 유물

#### 농운정사 현판

- 이황의 글씨

#### 관란헌(觀瀾軒) 현판

- 농운정사 서쪽 마루에 걸린 편액
- 이황의 글씨
- 관란觀瀾: 『맹자』의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에서 인용, 물결이 세찬 물은 그 원천이 깊듯이 성인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음을 의미

#### 시습재(時習齋) 현판

- 농운정사 동쪽 마루에 걸린 편액
- 시습時習: 『논어』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인용, 학문에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의미
- 이황의 글씨

- 스스로 깨우치는 자득<sup>自得</sup> 공부의 중요성 강조
- 거접<sup>居接</sup>이나 강회<sup>講會</sup> 등 집단적인 학술활동을 중요시
- 책을 통하여 성현의 언행을 마음에 체득하고 침잠하여 탐구할 것을 당부
- 책을 읽을 때 정독과 숙독을 강조하며 제한된 종류의 책 강학
- 차례를 뛰어 넘는 엽등<sup>獵等</sup>의 공부 경계
  - \* 참고: 이덕홍<sup>李德弘</sup>, 1541~1596이 남긴 이황의 강학
- 축천무후<sup>則天武后</sup>, 624~705와 양귀비<sup>楊貴妃</sup>, 719~756 등의 내용이 담긴 역사서 교육
- 『심경<sup>心經</sup>』의 수신재정기심<sup>修身在正其心</sup> 등에 대해 묻자, ‘경<sup>經</sup>’에 대해 교육
- 『예기<sup>禮記</sup>』, 『악기<sup>樂記</sup>』의 ‘예악불가사수거신<sup>禮樂不可斯須去身</sup> (예악은 잠시라도 몸을 떠날 수 없다)’, 『심경부주<sup>心經附註</sup>』의 ‘언충신행독경<sup>言忠信行篤敬</sup> (말은 진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실은 독실히 공경해야 한다)’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답변

## 도산서원 강회

- 학파의 학설을 넘나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강장<sup>講長</sup>은 당대 퇴계 학단을 이끌던 인물 선출, 강생<sup>講生</sup>도 대부분 주요 가문 대표하는 신진기에
- 1596년 작성 문서에는 거접시에 지출 목록 확인: 목면으로 『예설<sup>禮說</sup>』, 『시서언해<sup>詩書諺解</sup>』, 『여문정선<sup>儒文程選</sup>』 등 구매
- 을묘강회<sup>1795</sup>, 갑인강회<sup>1854</sup> 등의 기록 남음
- 1795년 을묘강회는 정조의 책 하사, 치제 등의 분위기에 힘입어 석전<sup>釋奠</sup> 파재일에 맞추어 개설

## 도산서원 장서 관리

- 도산서원의 장서에는 서책과 관련 기록물이 풍부하게 남아 있음
- 서책만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전장기<sup>傳掌記</sup> 존재
- 도산서원의 총칙 광명실<sup>光明室</sup> 개폐 규정은 점검과 출입에 대한 규정을 둬
  - \* 반드시 3임(원장, 재유사, 별유사)이 모두 모이거나 당회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임<sup>院任</sup>에게 품의하여 처리
  - \* 서책은 별도의 장부를 비치해두어야 하고, 유사가 교체될 때는 먼저 목록을 가지고 확인한 뒤 포쇄하거나 당회가 있을 때 하나 하나 대조 확인해야 함
- 상재협실<sup>上齋夾室</sup>, 책방<sup>冊房</sup>, 광명실<sup>光明室</sup>에서 장서 보관
- 7년 간격으로 종합목록 만들고, 이를 기초로 새로 입고한 도서 추록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서책을 별도 목록화
  - \* 목록에 ○, ●, 中 등의 점검 표시
- 관련 유물: 『서책치부<sup>書冊置簿</sup>』(1775)

## 도산서원 출판

- 1600년 『퇴계선생문집<sup>退溪先生文集</sup>』을 가장 먼저 출판
- 『퇴계집<sup>退溪集</sup>』, 『월천집<sup>月川集</sup>』, 『온계집<sup>溫溪集</sup>』, 『송재집<sup>松齋集</sup>』 등 문집 간행
- 『주자서절요<sup>朱子書節要</sup>』, 『역해참고<sup>易解參攷</sup>』 등 성리학 서적 간행
- 특정 가문 인사들의 문집을 간행, 목판 보관
- 출판시 간소<sup>刊所</sup>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주관



## 03. 제향

### 인물

#### 이황(李滉)

-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퇴도退陶, 도수陶叟, 도옹陶翁, 시호는 문순文純
- 저서: 『주자서절요』, 『역학계몽전易學啓蒙傳疑』, 『성학십도聖學十圖』,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등

### 건물

#### 상덕사(尙德祠)

- 제향인물인 이황과 조목의 위패 봉안
- 창건연도: 1574년 / 1969년 보수
- 상덕尙德: 『논어論語』의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다, 이 같은 사람이여!’(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에서 인용, 이황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
- 주향위로 정면 중앙에서 남향으로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종향위로 동쪽 벽에서 서향으로 조목의 위패를 모심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정침 동쪽에 사우祠宇를 세운다’는 내용에 따라 강당 뒤 동쪽에 배치된 대표적 사례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상덕사 관련 유물

#### 상덕사 현판

- 글씨는 이일삼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나 미확인

### 전사청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및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
- 2칸으로 된 건물로 동쪽이 주청, 서쪽은 제기고
- 식재료를 옮기는 고직사와 사당 사이 위치
- 도산서원 이후부터 사우와 전사청의 공간 구분이 이루어짐

### 의례

#### 도산서원 향사(享祀)

- 이황의 학덕學德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
-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춘추향사 거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중정일이 국기일國忌日에 해당하거나 유고가 있으면 하정일下丁日에 행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해일亥日에 진행
- 과거에는 2박 3일, 심야에 치르던 것을 2009년부터 1박 2일로 단축하고 오전 11시로 변경

#### 정재일알묘례(整齋日謁廟禮)

- 선현의 위패 혹은 신주를 참배하는 의식

- 일반알묘: 내방객이 사당 참배
- 향알香謁: 서원의 유사有司가 매월 초하루, 보름에 분향 및 참배
- 정알正謁: 매년 정월 초5일에 유사, 유생이 함께 알묘
- 정제일알묘례整齊日謁廟禮: 춘추 향사 전날 모든 집사들이 참배

## 도산서원 향사 준비

### ① 차제(差祭)

- 제관祭官을 임명하는 절차. 춘추 향사 당월 초하루에 전교당에서 시행
- 유사를 선출하는 천망薦望 이후 제관 후보에게 사령장辭令狀인 망기望記를 보냄

### ② 재계(齋戒)

- 향사 거행 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향 준비
- 과거에 유사는 향사 3일 전 입재, 헌관 및 촉관, 집례, 유생은 2일 전 입재
- 2009년 향사부터 향사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입재

### ③ 정재일(整齋日) 알묘례

- 3일 전에 헌관 이하 집사가 입재하여 정재일 이른 아침에 진행
- 2009년 춘향부터 향사 전일 오전 11시 무렵으로 변경

### ④ 척기례(滌器禮)

- 재유사들이 전사청에서 제기祭器 점검

### ⑤ 집사분정(執事分定)

- 헌관 이하 모든 유생이 전교당으로 이동하여 헌관 및 집사 선정
- 전교당 벽에 걸린 분정판에 한지를 붙여 기록

### ⑥ 축문(祝文) 작성

- 촉관祝官이 사당에 들어가서 축판祝板을 가지고 축문 작성

### ⑦ 독약(讀約)

- 백록동규白鹿洞規, 예안향약禮安鄉約, 여씨향약呂氏鄉約 등을 소리내어 읽음

### ⑧ 생간례(牲看禮)

- 향사에 사용할 제수祭需 점검
- 유사가 희생 앞에서 충充이라 고하면 헌관이 돌臍이라고 답함
- 도산서원에서는 원래 계성鷄腥(생닭)을 사용하다가 시豕로 바뀜

### ⑨ 봉준례(封樽禮)

- 전사청에서 제주祭酒 점검

### ⑩ 석미례(淅米禮)

- 제사에 사용할 쌀과 기장을 씻음

### ⑪ 습례(習禮)

- 향사에 필요한 범절, 절차, 순서를 미리 익힘

## ⑫ 진설(陳設)

- 홀기에 근거하여 제수를 제상 위에 차림

## 도산서원 향사 절차

### ①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

### ② 독축(讀祝)

- 축관이 축문을 읽음

### ③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

### ④ 종헌례(終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고, 종향위께 분헌관이 술잔을 올림

### ⑤ 음복수조(飲福受胙)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고기를 맛봄

### ⑥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둬

### ⑦ 망예(望瘞)

- 축문을 구덩이에 묻음

\* 자세한 사항은 『도산서원 춘추향사 조사보고서』, 『도산서원 종합 정비계획』 참고

## 04.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 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천연대(天淵臺)·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 목적: 서원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기능
- 서원 전면의 낙동강을 조망하는 곳에 조성

### 절우사(節友社)

- 이황이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고 자신과 함께 풍상계風霜契를 맺어 굳은 절개와 향기를 완상玩賞 함

### 고직사(庫直舍)

- 목적: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이들이 거하던 곳

- 구분을 위해 서원의 고직사를 상고직사<sup>上庫直舍</sup>, 서당 영역 고직사를 하고직사<sup>下庫直舍</sup>라 함
- 상고직사의 지금 건물은 1932년 옮겨 지은 것

## 옥진각(玉振閣)

- 퇴계 선생의 유물전시관으로 1970년 완공
- 옥진<sup>玉振</sup>: 원래 처음과 끝을 두루 갖춘 공자의 성덕을 음악에 비유하여 찬양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을 높여 집대성함을 표현한 것

### 옥진각 관련 유물

#### 옥진각 현판

-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입구에 걸린 편액
- 이황의 후손 이가원<sup>李家源</sup>, 1917~2000이 작성

## 안동 도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학문,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한 서원

- 1574년 건립된 서원
- 예안과 안동 인근의 사림과 이황의 제자들이 건립하여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발휘
- 제향의례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국 서원 제향의 정향
- 성리학 관련 고서,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
-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
- 성리학적 예학 건축이론을 한국적 방식으로 재해석 하여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비대칭으로 설정한 서원 건축의 혁신

### 주요특징

#### - 구성 및 입지

- 낙동강을 전면으로 한 강경<sup>江景</sup> 입지의 전형을 제시함

#### - 특징

- 이황이 제자들과 함께 강학 활동을 했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건립되었음. 퇴계학파의 근원지

#### 도산서당

- 서원 전면에 위치하며 이황이 강학 활동을 했던 장소이다. 검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황의 검소한 가치관을 볼 수 있다. 도산서당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황의 제자들이 양성되었으며, 이를 모태로 서원으로 발전